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특성
- 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 중심으로 -

권혜숙

상명대학교 디자인 대학 의상 디자인 전공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In Current Women's Fashion**

- Centered on the Collections of Paris, Milan, New York, London -

Kwon, Hae-Sook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 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of contemporary female fashion by reviewing 'pre-a-porter Collections' of four collections (i. e. cities) - Paris, Milan, New York, London - from the periods of 2002 S/S to 2006/7 A/W.

The data was collected by reviewing 'pre-a-porter Collections' magazine and total 677 observations were made. Statistical analysis of frequency and also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characteristics were completed.

The main findings were:

(1) The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was identified as one of most used color coordination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collections.

(2) Black and white mainly used for achromatic color, and brown used the most often, then followed by blue, red, yellow, green and the others for chromatic color in achromatic & chromatic coordination of contemporary women's fashion collections.

(3) The characteristics of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of modern women's fashion collections from 2002 S/S to 2006/07 A/W showed various images according to chromatic colors and tone variation. The combination of achromatic and brown color variations produced an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image. The soft or light chromatic color and chromatic color combination projected soft, feminine and subtle feeling, while the combination of vivid or strong chromatic color and achromatic color projected a clean and

strong feeling through contrasting tones of clear and bright colors. The chromatic color of deep or dark tone and black combination demonstrated supernatural and gloomy image.

(4)In all four collections, Paris showed most use of two color coordination and then followed by Milan, N.Y, and London. N.Y showed higher rate of using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 and then followed by Paris, London and Milan.

Key Words : Achromatic & Chromatic color coordination(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 Color tone coordination(색채톤에 의한 코디네이션), Achromatic color(무채색), Chromatic color(유채색)

1. 서론

색은 현대 문화 시각 정보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¹⁾ 특히 의복에서는 한가지 색상보다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함께 사용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어울리게 될 때는 한가지 색이 지닌 독특한 느낌이 애매해지고 색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키는 것을 배색이라 한다.²⁾³⁾ 배색의 색채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는 한 가지 색으로는 느낄 수 없는 효과를 야기하고 단색에서 느끼는 감정의 합 이상의 것으로 지각되는 감정을 전달한다. 따라서 의복에서는 단색이 지니는 이미지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하다.⁴⁾⁵⁾

아름다운 색의 배색에 대한 느낌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화의 느낌을 평준화하여 어떤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색을 대할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색채의 배색과 조화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배색을 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배색의 원리 혹은 색채조화의 원리가 있다⁷⁾. 색채조화란 두 색 내지, 그 이상의 색들의 관련 효과의 가치 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⁸⁾ 여러 가지 색채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색상환에서의 색들을 조화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⁹⁾.

미국의 색채학자인 저드(D.B.Judd)는 색채조화의 네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첫째, 질서의 원리로 색채 중에서 원칙에 의해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은 질서있는 조화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둘째, 유사성의 원리는

배색에서 색들이 공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색채군이 조화된다는 원리로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적으며 서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색채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셋째, 친숙의 원리는 자연계처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친근하게 느껴지는 색들의 배색이 조화가 잘 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명료성의 원리는 배합 방법, 면적 등에서 애매하지 않고 명료하게 선택된 배색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원리로 여러 색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고 명쾌한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원리이다.¹⁰⁾¹¹⁾

이러한 색채조화의 개념은 의상에서의 배색에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색채 코디네이션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돋보이게 하거나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그러므로 색채 배합에 대한 이해는 현대패션에서의 색채사용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패션에서의 색채코디네이션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¹³⁾¹⁴⁾은 이미지나 메이크업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최근 진행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파악에 관한 연구¹⁵⁾에서도 유형별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여러 색채들 중에서 무채색은 거의 모든 색과 무리없이 어울리므로 유채색과 조화를 이룰 때 사용 색채 코디네이션의 여러 유형들에서도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배색 방법인 동시에 현대 여성 패션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신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 디자인을 중

심으로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컬렉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의복에서의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의 사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색채 배합을 통한 패션 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채에 대한 이해

1) 색채의 종류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무채색은 흰색과 여러 단계의 회색 및 검정색에 속하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색광학의 색으로, 가장 밝은 흰색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검정색 사이에 들어가는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암의 차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무채색의 구별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명도는 있지만 색상, 채도는 없는 것이다.¹⁶⁾¹⁷⁾

유채색은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으로 색채를 느끼는 유색광학을 말한다.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색 등과 그 중간색은 물론, 이러한 색들의 색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유채색으로 볼 수 있다.¹⁸⁾

2) 색의 삼속성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색이 결정되며, 이것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¹⁹⁾.

색상(Hue)이란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색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의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²⁰⁾. 이 용어는 '색채'란 용어와 자주 혼동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색상은 단일한 하나의 고유한 색을 의미하고 색채는 그것을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시킨 것이다²¹⁾. 명도(Value)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먼셀 색체계의 색상면에서는 무채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흑색은 0, 이상적인 백색은 10으로 하고 그 사이는 회색으로 되어 있으나 실용화된 색표에서는 이상적인 흑과 백은 불가능하므로, 9.5에서 1.0을 사용한다. 유채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채색의 밝음의 감각이 무채색의 기준과 동등한 곳의 명도기호를 사용한다²²⁾. 채도(Chroma)는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색의 탁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색상환에 나타난 색은 순색으로 회색이 가해질수록 탁해진다.²³⁾ 채도의 단계는 14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의 채도가 1이며 가장 높은 것이 14이다. 채도의 단계는 색상마다 다른데, 중명도의 색상은 단계의 폭이 크고, 고명도는 채도차의 폭이 좁다.²⁴⁾²⁵⁾

3) 색채론

색채에는 각각 명암, 농담, 순수함, 탁함이라는 색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색의 상태가 있는데, 이 색조를 톤(tone)이라고 한다. 톤은 일상생활의 느낌으로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이다. 우리가 색을 지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지각하게 된다.²⁶⁾

톤의 분류는 미국의 ISCC-NBS와 일본 색채연구소가 제안한 톤 분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일본색연배색체계(PCCS: Practical Colour Coordinate)는 무채색 축을 제외한 12개의 톤으로 색채를 분류하여 복식 디자인에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²⁷⁾. 톤 분류법은 색상과 톤 2가지로 색채를 다루기 때문에 색채조화에서 색의 3속성에 의한 것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²⁸⁾.

(1) PCCS의 톤 유형과 유형별 특징

PCCS의 톤분류법은 동일색상면을 순색, 중간색조, 밝고 맑은 색조, 어둡고 맑은 색조, 회색색조의 5등분으로 나누고, 순색에는 비비드와 스트롱, 중간색조는 라이트와 덜, 밝고 맑은 색조는 브라이트와 페일, 어둡고 맑은 색조는 딥과 다크로 나누고 회색조는 고명도의 라이트 그레이시, 중명도는 그레이시, 저명도는 다크 그레이시 등으로 톤 블록을 설정하고 있다.

비비드 톤은 색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선명하

고 강한 색조로 대담한 표현과 자유분방함을 강조하는 스타일에 적당하며,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브라이트 톤은 순색에 흰색을 약간 가미한 밝고 맑은 색조를 나타내며 신선한, 명랑한, 건강한,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라이트 톤은 브라이트 톤보다 조금 더 밝고 온화한 색조로 산뜻한, 고운, 여성적인, 로맨틱한 이미지 표현에 주로 사용되며 페일 톤은 깨끗한, 부드러운, 가벼운, 섬세한 이미지에 주로 사용된다. 디프 톤 깊은, 충실한, 원숙한 느낌을 주므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효과적이고 다크 톤은 각 색상 간에 구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화려함이 없고 소박한 느낌이 강하므로 어두운, 수수한, 남성적인, 견고한, 무거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덜 톤은 색의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 둔하고 침착한 느낌을 주고 수수한, 평온한, 점잖은, 차분한, 내추럴 이미지에 적절하다. 라이트 그레이시 톤은 마치 햇빛에 바랜 것처럼 보여 흐릿하고 환상적이며, 차분한 이미지 표현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그레이시 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색의 이미지는 우울하고 침울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함을 잘 표현하는 톤이다.²⁹⁾

(2) 톤의 특징별 배색형식

톤의 특징을 살린 배색형식을 분류하면 크게, 동일한 톤에 의한 조화, 유사한 톤에 의한 조화, 그리고 대조톤에 의한 조화로 분류될 수 있다.³⁰⁾

동일톤의 배색은 색상이 다르더라도 채도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정한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하며 색채 조화가 용이하다.³¹⁾ 전반적으로 동일톤의 배색은 차분하며 일관된 통일성을 갖게 되며, 동일 색상의 조화는 정적이며 차분하고 시원시원해서 솔직하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³²⁾

유사톤에 의한 색채조화란 가로 의 채도축이나 세로 의 명도축, 혹은 대각선상에 가까이 위치한 색조끼리의 배색으로 차분하며 안정되며 화합적이고 평화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³³⁾

대조톤에 의한 색채조화는 상호의 톤이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명도나 채도 또는 명도와 채도 모두가 동시에 대조적 관계의 배색이다.³⁴⁾ 대조톤에서는 명도차를 강조한 관계, 채도차를 강조한 관계, 거기에 명도도 채도도 대조적 관계인

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형태색과 바탕색, 강조색과 기초색 등과 같이 관계가 분명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배색으로 모두 대비효과가 강조된 관계가 특징이다. 강하면서도 생생하고 예리하며, 동적이며 화려하며 자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그 차이가 크게 배합된 것일수록 자극성, 주목성이 강하다.³⁵⁾

2.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의 특성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합은 무채색을 주조로 하여 유채색을 약간 배합시키는 방법으로 검정색, 회색, 흰색 등을 넓은 면적으로 잡고 빨간색, 노란색등의 유채색을 약간 배합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³⁶⁾ 이러한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조는 무채색과 대조된 유채색의 색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무채색과高明도, 고채도의 유채색 배색은 뚜렷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무채색과 저명도, 저채도의 유채색 배색은 소박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준다.³⁷⁾

검정색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거나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하고 싶을 때에 다른 색과의 배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다. 검정과 배색하면 연한색은 더욱 연하게, 강한 색은 더욱 강하게 보임으로서 다른색의 특성을 더욱 강조해 준다.³⁸⁾ 즉, 검정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과 코디네이션하면 더욱 밝고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반대로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과 코디네이션하면 더욱 어둡고 가려하며 차분하게 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다.³⁹⁾ 또한 여러 가지 색상의 문양을 돋보이게 하고자 할 때, 유채색을 바탕으로 하면 바탕과 반대되는 색상은 돋보이지만 바탕과 비슷한 색상은 색이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채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흰색이나 회색도 유채색보다는 효과적이거나 검정이 가장 효과적이다. 검정은 화려한 색을 더욱 화려하게, 선명한 색을 더 선명하게, 차분한 색을 더 침착하게 하는 역할 때문에 모든 색이 고루 돋보이게 되기 때문이다.⁴⁰⁾

흰색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색을 방해하지 않고 상대색이 지닌 특성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모든 색상에 민감하여 배색되는 색의 톤이나 색상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검정처럼

기본색, 강조색 그리고 다른 색과의 배색에 많이 사용된다.⁴¹⁾ 명도가 높은 흰색이 유채색과 배색되면, 유채색만이 눈에 띄게 는데 이는 색은 대비 효과가 두드러질 때 강조하고자 하는 쪽의 색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흰색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 또는 짙은 색과 배색될 때 상대를 더 선명하고 짙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명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터나 사인물 제작 등의 그래픽 디자인에서, 배색을 통해 그 색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흰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다.⁴²⁾

회색은 화려한 색과 배색되면 그 색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연한색과 배색되면 색이 지닌 부드러움을 돋보이게 하는 등 어떠한 색과도 잘 배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패션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초색 중 하나이다. 회색은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색상과 어울리는지가 달라지므로 배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비비드 톤은 중명도의 회색이나 조금 더 어두운 회색과 어울리고, 밝고 연한 색상들은 고명도의 회색과 잘 어울린다.⁴³⁾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 자료의 선정기준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발행연도가 비교적 연속성이 있으며, 발행 부수가 안정적이며, 세계 유행의 흐름 속에서 트렌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패션 전문 잡지인 동시에 해외 컬렉션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컬렉션’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범위는 2002년 S/S부터 2006/7 A/W까지 총 5년 동안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5년 동안에 출간된 ‘컬렉션(COLLECTIONS)’지에 나타난 디자인들 중 4대 패션 중심지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S/S 15권씩, A/W 15권으로 총 30권에 나타난 유채색과 무채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 677개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⁴⁴⁾

2. 분석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색상배합은 2색상 배색을 기준으로 하였다. 의상은 두 가지의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 하 혹은 안팎이 서로 상이한 색상인 경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인 경우라도 두 색상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또다른 아이템으로 배색되어 있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소재에 패턴이나 문양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에 붙어 있는 구슬이나 비즈,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특정한 색으로 파악하기 힘들거나 모호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KS A 0062-71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준하여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섬유 산업체나 교육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색채를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연구의 단계와 과정은 연구자 외 의상 전공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1) 본 연구에 사용될 색상과 톤의 유형별 선정은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색들과 명도, 채도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기준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유채색의 선정을 위해 30권의 분석대상 중 무작위로 2권을 선정하여 그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유채색은 빨간색 계열(빨간색과 분홍색), 청색 계열, 초록색 계열(초록색과 카키), 갈색 계열(진갈색이나 중간 갈색과 연갈색), 노란색 계열과 기타 (주황색 계열, 보라색 계열, 크림색 계열)로, 총 11개 색상계열의 6가지 유형의 유채색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기로 하였다.

무채색의 경우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단계 모두를 무채색으로 선정하였으나 흰색과 검정 그리고 회색의 3개를 중심으로 무채색을 조사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될 톤의 단계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나타난 54개의 유채색들 중 무작위로 7개의 유채색을 선택하여 각 색상들의 등색상면 분포를 중심으로 동일, 유사, 대조의 3단계 톤차이를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톤의 단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동일톤은 명도 10도에서 채도 010~020, 유사톤은 명도 20도~50, 채도 020~080, 대조톤은 명도 60에서 그 이상, 채도 100에서 그 이상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때, 무채색의 경우는 명도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도만을 중심으로 톤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5. 자료분석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분류에 참여한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0.91로 나타났다. 자료 처리 방법은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빈도와 컬렉션별 색채 코디네이션 유형의 양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코디네이션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6.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색상 - 하나의 단일 색으로 빨강(R), 노랑(Y), 녹색(G), 청색(B), 자주(P), 등의 다른 색과 구별되는 색 이름을 의미한다.
- 2) 색채 -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합한 색을 의미한다.
- 3) 유채색과 무채색 코디네이션 - 유채색과 무채색의 색채배합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빈도 및 특징

'02 S/S에서 '06/07 A/W 까지 최근 5년간 세계 4대 패션 중심지에 나타난 2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 빈도는 2396개 이었고 그 중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은 677개(28.2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발생 빈도율을 보이고 있어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들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유형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⁴⁵⁾를 지지하고 있다.

<표 1>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코디네이션의 색상별 발생 빈도

색상별 발생빈도 및 빈도율 색채 유형	색상명	발생 빈도 및 빈도율(%)		총빈도 및 빈도율(%)
무채색	흰색	243(35.89)		677 (100)
	회색	34(5.02)		
	검정색	400(59.08)		
유채색	빨간색 계열	빨간색계열	102(15.07)	134(19.79)
		분홍색계열	32(4.73)	
	청색 계열		126(18.61)	
	갈색계열	진.중간갈색 계열	96(14.18)	174(25.7)
		연갈색 계열	78(11.52)	
	초록색계열	초록색 계열	44(6.5)	76(11.23)
		카키색 계열	32(4.73)	
	노란색계열		93(13.74)	
	기타	크림색 계열	18(2.66)	74(10.93)
		주황색 계열	27(3.55)	
보라색 계열		29(4.28)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와 색상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무채색 중 검정의 사용이 매우 두드러져 677개 중 400개 (59.1%)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흰색으로 243개 (35.9%) 그리고 회색은 34개(0.5%)의 매우 낮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채색의 경우는 갈색계열의 색상이 174개(25.70%)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은 빨간색 계열이 134개 (19.79%), 청색계열의 색상이 126개(18.61%), 노란색 계열이 93개(13.74%), 초록색 계열이 76개 (11.23%)로 나타났고 그 밖에 보라색 계열이 29개 (4.28%), 오렌지색 계열 27개(3.55%),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색 계열이 18개(2.66%)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유형별 발생 빈도는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은 대조톤(73.7%)에 의한 코디네이션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유사톤(23.5%), 그리고 동일톤(1.8%)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은 강한 색조의 대조를 통한 색채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배색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1>과 <표 2>의 결과와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의 색채배합 특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2002년 S/S부터 2006/7 A/W까지 5년간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검정은 다양한 유채색들과 대조톤이나 유사톤 그리고 드물게는 동일톤에 의해 배색되어 유채색의 특성과 톤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해 내고 있었다. 검정은 화려한 색을 더욱 화려하게, 선명한 색을 더 선명하게, 차분한 색을 더 침착하게 하는 역할 때문에 모든 색이 고루 돋보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많이 사용된 유채색인 갈색은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색으로 검정과 배색되어 세련된

인상을 주고 연갈색과 배색되면 지적인 분위기나 커리어우먼과 같은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⁴⁶⁾ 본 연구에서는 질거나 중간 정도의 어두운 갈색이나 부드럽고 밝은 연갈색 계열인 베이지색을 중심으로 배색되어 주로 이지적이고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사진 1,2>⁴⁷⁾⁴⁸⁾.

(2) 명도와 채도가 높은 비비드 하거나 브라이트한 빨간색, 노란색 계열 등의 따뜻한 유채색과 대조톤으로 매치 되어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유채색들 중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빨간색은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특성을 지닌 활력이 넘치는 강렬한 색으로 주로 선명하고 비비드 톤의 빨간색이 검정과 매치하여 빨간색의 선명함이 한층 돋보이도록 연출되고 있었다.<사진 3>⁴⁹⁾ 그러나 다소 채도가 낮은 칙칙한 덜 톤이나 어두운 다크 톤 혹은 회색조의 그레이쉬 톤의 빨간색과 배색되어 화려함이나 강렬함이 배제되고 침착하고 때론 음침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보이고 있었다.<사진 4>⁵⁰⁾

그러나 섬세하여 보이는 분홍색은 낭만과 여성스러움이 잘 나타나는 색으로 밝고 깊은 색상을 띤 분홍색은 검정과 배색되어 눈에 잘 띄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으나 차분한 핑크나 옅은 라이트 톤의 분홍색과 매치되어 보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다수 보이고 있었다.<사진 5>⁵¹⁾

비비드 톤 중에서 가장 밝고 화려한 이미지의 색인 노란색은 즐거움, 햇살과 같은 느낌을 주는 색으로 여러 가지 감각의 색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비비드 톤의 노란색이 검정과 매치하여 밝고 강렬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나<사진 6>⁵²⁾ 채도가 낮은 덜 톤이나 그레이시 톤의 노란색들은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고 차분하면서도 성숙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표 2>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코디네이션의 색상톤 발생 빈도

톤유형	동일	유사	대조	총빈도
빈도	12(1.79%)	159(23.75%)	499(74.48%)	677(100.00%)

촉제나 활동적인 에너지 등을 나타내는 주황색은 페일 톤, 라이트 톤 등의 산호색, 연어색, 복숭아색 등이 검정색과 배합되어 더욱 깊고 품격이 느껴지는 여성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3) 청색과 초록색 계열 등의 찬색과 유사톤이나 대조톤 범위에서 매치되어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거나 유채색과의 차이가 명확치 않은 유사톤이나 동일톤에 의한 색채배합으로 차분하고 안정감을 보이거나 무게감을 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채색들 중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색인 청색은 본 연구에서는 어둡고 무거운 진청색에서 중간 정도 밝기의 청색 계열의 색들이 검정과 배색되어 차갑고 냉정하며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있었고 그레이시 톤의 청색은 검정과 매치되어 다소 초자연적이며 주술적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밝고 연한 청색과 검정의 배색은 부드러운 세련미를 더 해 주고 있었다.<사진 7, 8>⁵³⁾⁵⁴⁾

초록색 계열은 유채색 중 가장 폭넓은 색채 범위에서 사용되었는데 밝고 경쾌한 초록색에서 자연색과 같은 싱그런 초록색 그리고 회색조를 띤 초록과 디프 톤이나 다크 톤의 어두운 초록, 카키색 계열의 초록색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두운 초록 계열은 검정과 배색되어 성숙하면서도 신비스러움을, 밝거나 원색의 초록 계열과 검정 배색은 젊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카키색 계열과 검정과 배합은 와일드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세련된 감성을 보여주고 있었다.<사진 9,10>⁵⁵⁾⁵⁶⁾

이처럼 검정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과 코디네이션 되어 더욱 밝고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과 코디네이션 되어 더욱 어둡고 차분하게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흰색은 주로 부드러운 색조의 유채색들과도 배색을 이루어 화사하고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출해 내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밝고 경쾌한 유채색이나 강렬한 유채색과의 배합되

어 발랄하고 강렬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도 하고 때론 디프 톤의 유채색과의 배합을 이루어 부드러운 중후함과 더불어 우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흰색과 배합된 갈색은 부드러움과 우아한 지성적 세련미가 더해지고<사진 11>⁵⁷⁾, 청색 계열은 깔끔한 인상과 상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고 초록색은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이나 싱싱함을 보여주고 있었다.<사진 12>⁵⁸⁾ 카키색은 캐주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흰색과 매치되어 시원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사진 13>⁵⁹⁾ 노란색 계열은 브라이드 톤이나 스트롱 톤의 노란색들과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색은 밝고 젊으면서도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사진 14>⁶⁰⁾ 명도, 채도가 높은 주황색은 흰색과 매치되어 활동적인 에너지를 표출해 주고 있었다.<사진 15>⁶¹⁾

이러한 결과는 흰색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색이 지닌 특성을 돋보이게 하며 또한 모든 색상에 민감하여 배색되는 색의 톤이나 색상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고 또한 색은 대비 효과가 두드러질 때 강조하고자 하는 색이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명도가 높은 흰색이 유채색과 배색되면, 유채색만이 눈에 띄게 되어 흰색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 또는 짙은 색과 배색될 때 상대를 더 선명하고 질게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무채색들 중 본 연구에서 매우 낮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는 회색은 지적이며 차분한 인상을 주는 색으로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색상과 어울리는지가 달라지므로 배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비비드 톤은 중명도의 회색이나 조금 더 어두운 회색과 어울리고, 밝고 연한 색상들은 고명도의 회색과 잘 어울린다'⁶²⁾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부드러운 중명도의 회색에 밝고 연한 유채색을 배색하거나 톤차이가 유사한 정도에서 배색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나 편안하고 안정감있는 이미지를 주로 나타내고 있었다.

2.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컬렉션 도시별 발생빈도 및 특징

4대 컬렉션별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에 의한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는 컬렉션 도시에 따라 2배색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가 달리 나타나 있음으로 2배색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에 따른 컬렉션별 발생 빈도율과 더불어 살펴보았다. <표 3>

2배색에 의한 색채코디네이션 발생빈도의 도시별 차이를 살펴보면 2배색에 의한 색채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 수 2396개 중 파리에서 812개(33.8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밀란 738개(30.80%), 뉴욕 445개(18.57%), 그리고 런던 401개(16.74%)로 나타나 파리와 런던은 30%가 넘는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인 반면 뉴욕과 런던은 17%에서 19% 정도로 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2배색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도시별로 빈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도시별 유채색, 무채색 코디네이션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뉴욕은 총 발생 빈도 445개 중 141개(31.69%)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파리는 812개 중 242개(29.34%), 런던이 401개 중 107개(26.68%), 그리고 밀란은 738개 중 187개(25.34%)의 빈도율로 나타났다. 즉, 뉴욕과 파리 그리고 런던과 밀란은 유사한 정도의 발생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컬렉션 도시별 발생비율은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컬렉션별 무채색의 유형별 발생빈도율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파리에서 무채색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5.75%) 그 다음은 밀란(27.62%), 뉴욕(20.83%) 그리고 런던(15.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도시에서 검정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흰색, 회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별 발생 빈도율을 도시

<표 3> 4대 컬렉션에 나타난 2배색 코디네이션과 유채색, 무채색 코디네이션의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	코디네이션별 빈도 및 빈도율	무채색+유채색 색채코디네이션 발생 빈도 및 빈도율(%)	2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 빈도 및 빈도율(%)	2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유채색 발생 빈도율(%)
뉴욕		141(20.83)	445(18.57)	31.69
밀란		187(27.62)	738(30.80)	25.34
파리		242(35.75)	812(33.89)	29.8
런던		107(15.81)	401(16.74)	26.68
총 발생 빈도		677(100)	2396(100)	28.26(100)

<표 4>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유채색, 무채색 코디네이션에서의 무채색 유형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	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색	총 발생빈도
뉴욕		45(31.92) (6.65)	4(2.84) (0.59)	92(65.25) (13.59)	141(100.00) (20.83)
밀란		85(45.46) (12.56)	12(6.42) (1.77)	90(48.13) (13.29)	187(100) (27.62)
파리		77(31.82) (11.38)	7(2.89) (1.03)	158(65.29) (23.34)	242(100.00) (35.75)
런던		36(33.65) (5.32)	11(10.28) (1.63)	60(56.08) (8.86)	107(100.00) (15.81)
TOTAL		243 (36.89)	34 (5.02)	400 (59.08)	677 (100)

별로 살펴보면 검정색의 경우 뉴욕과 파리는 유사한 비율로 65% 이상 나타나 매우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고 런던은 56%정도로 그리고 밀란은 48%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흰색의 경우 밀란은 45%, 런던은 34%, 파리와 뉴욕은 32% 정도의 빈도율을 보이고 있어 밀란은 다른 도시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세 도시는 유사한 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색은 런던에서는 10%, 밀란은 6%, 뉴욕과 파리는 3% 정도로 나타나 다른 두 도시에 비해 런던과 밀란에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빈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도시별 무채색의 발생 유형은 뉴욕과 파리는 검정색의 발생율이 흰색 발생율의 두 배가 넘는 정도로, 런던은 1.5배 정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밀란은 두 색이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컬렉션별로 무채색 사용 빈도율에는 차이를 보였다.

각 컬렉션별 유채색의 유형별 발생빈도율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무채색, 유채색 코디네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유채색을 컬렉션별로 살펴보면 런던을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서 갈색 계열이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컬렉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뉴욕의 경우는 노란색, 청색, 빨간색, 초록색 계열, 그리고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고, 밀란의 경우는 청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계열, 기타의 순으로, 파리는 청색과 빨간색 계열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초록색, 노란색 계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런던의 경우 갈색과 빨간색이 유사한 정도로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타, 노란색, 청색, 그리고 초록색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컬렉션과는 매우 다름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무채색의 경우와 같이 유채색도 컬렉션에 따라 발생빈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6>에 나타난 컬렉션별 톤 발생비율은 모든 도시에서 대조톤이 70%이상의 빈도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유사톤으로 런던(14.02%)을 제외하면 20%정도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동일톤은 1-3%내외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

<표 3, 4, 5>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서 두 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무채색, 특히 검정색과, 갈색, 청색, 초록색 계열의 유채색을 배합하면 세련되면서도 도시적인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음으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어떤 컬렉션보다 두드러진 도시인 뉴욕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리 컬렉션도 뉴욕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수용하고 있는 파리 컬렉션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⁶³⁾, 본 연구 결과에서도 비교적 색채 사용이 용이한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채색 색상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유채색 도시	빨간색	청색	갈색	초록색	노란색	기타	총 빈도 및 빈도율
뉴욕	21(14.89) (3.10)	25(17.73) (5.62)	39(27.66) (8.76)	15(10.64) (3.37)	27(19.15) (6.07)	14(9.93) (2.07)	141(100) (31.69)
밀란	38(20.32) (5.61)	40(21.39) (5.42)	53(28.34) (7.18)	17(9.09) (2.3)	20(10.7) (2.71)	19(10.16) (2.81)	187(100) (25.34)
파리	48(19.84) (7.09)	48(19.83) (5.91)	56(23.14) (6.9)	36(14.88) (4.43)	32(13.22) (3.94)	22(9.09) (3.25)	242(100) (29.8)
런던	27(25.23) (3.99)	13(12.15) (3.24)	26(24.3) (6.48)	8(7.48) (2)	14(13.08) (3.49)	24(20.56) (3.55)	107(100) (26.68)
TOTAL	134 (19.79)	126 (18.61)	174 (25.70)	76 (11.23)	93 (13.74)	74 (10.93)	677 (100)

<표 6>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도시	특별 빈도 및 빈도율	동일	유사	대조	총빈도 및 빈도율
뉴욕		1(0.71) (0.15)	31(21.99) (4.58)	109(77.30) (16.10)	141(100) (20.83)
밀란		2(1.07) (0.3)	48(25.67) (7.09)	137(73.26) (20.24)	187(100) (27.62)
파리		7(2.89) (1.03)	65(26.86) (9.6)	170(70.25) (25.11)	242(100) (35.75)
런던		2(1.87) (0.3)	15(14.02) (2.22)	9(84.11) (13.29)	107(100) (15.81)
TOTAL		12 (1.77)	159 (23.49)	506 (74.74)	677 (100.00)

런던과 밀란은 두 도시에 비해 두 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밀란에서의 무채색 발생 비율의 양상은 다른 세 도시들과는 달리 검정과 흰색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대 컬렉션 중에 밀란에서 무채색의 흰색(W)과 라이트 그레이(ItGy)의 분포가 많이 나온다'는 연구⁶⁴⁾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런던과 밀란에서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의 색채 코디네이션 사용이 다른 두 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런던 컬렉션에서는 패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색상(G, BG, B)의 계열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⁶⁵⁾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런던의 특성상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 등과 같은 무난한 색채 배합 방식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으며 자극적인 색채 배합을 통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컬렉션별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에서의 무채색 발생비율은 파리에서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5.75%) 그 다음은 밀란(27.62%), 뉴욕(20.83%) 그리고 런던(15.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무채색의 발생 유형은 뉴욕과 파리는 검정색의 발생율이 흰색 발생율의 두 배가 넘는 정도로, 런던은 1.5배 정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밀란은 두 색이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 컬렉션별로 무채색 사용 빈도율에는 차이를 보였다. 유채색의 경우는 런던을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서 갈색 계열이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컬렉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컬렉션의 특성이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 사용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2002년 S/S부터 2006/7 A/W까지 5년간 4대 패션 중심지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배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컬렉션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두 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 2396개 중 유채색과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율은 677개(28.26%)로 패션에 많이 사용되는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

(2)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에서 무채색 중 검정색이 59.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흰색이 35.9%, 그리고 회색은 0.5%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은 다른 색과의 배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라는 선행연구 내용과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

나 회색이 패션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초색 중 하나라는 연구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유채색의 경우는 갈색계열이 25.7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청색계열이 18.61%, 빨간색 계열 15.01%, 노란색 계열 13.74%, 초록색 계열 11.23%로 나타났고 그 밖에 보라색이 4.28%, 오렌지색 3.55%,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색 계열이 2.66%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갈색 계열색상이 두드러진 것은 갈색은 2000년대 들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 가장 핫트렌드 색상으로 부각되어 있는 영향 때문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무채색과 유채색은 대부분 대조톤(73.75%)에 의해 코디네이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은 유사톤(23.5%), 그리고 드물게는 동일톤(1.8%)에 의해서도 코디네이션 되어 색채 대조의 강약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3) 무채색과 유채색이 배색된 경우 무채색과 대조된 유채색의 색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으로 인하여 2000년 S/S에서 2006/07 A/W까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유채색과 무채색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유채색상 자체의 특성과 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해 내고 있었다.

갈색 계열은 검정과 배색되어 차분하고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흰색과 배색되면 한층 부드러움이 더해졌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비비드 하거나 브라이트 한 난색 계열의 색상들과는 주로 대조톤으로 배색되어 뚜렷하고 화려한 느낌이나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나 생동감을 보여 주었는데 검정과 코디네이션 되면 강렬한 이미지가 더해지고 흰색과 매치되면 선명하고 화사한 느낌이 더해졌다. 그러나 라이트 톤이나 페일 톤 혹은 덜 톤의 난색과 흰색이 배색되면 한결 부드럽고 여성적이면서도 품격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검정과 배색되면 감각적이면서도 분위기 있는 세련됨이 돋보였다.

청색과 초록색 계열 등의 찬색계열의 색상들은 스트롱 톤이나 비비드 톤은 대부분 흰색과 대조톤으로 배색되어 깔끔하고 경쾌한 이미지나 산뜻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드러운 그레이시 톤이나 페일 톤 혹은 라이트

톤의 청색과 초록색 계열은 검정과 흰색 모두와 배색되었는데, 검정과 배색된 경우는 차분하며 정적인 도시적 세련미를, 흰색과 배색된 경우에는 보다 부드러운 도시적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크 톤과 디프 톤의 청색과 초록색 계열은 흰색보다는 검정과 더 많이 배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색계열과 검정의 배색은 차갑고 냉정하며 강한 남성적 이미지나 초자연적이며 주술적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초록색 계열은 성숙하면서도 신비스러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과 코디네이션 되어 더욱 밝고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과 코디네이션되어 더욱 어둡고 차분하게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내용과 명도가 높은 흰색이 유채색과 배색되면, 유채색만이 눈에 되어 흰색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 또는 짙은 색과 배색될 때 상대를 더 선명하고 질게 보이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4) 유채색과 무채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컬렉션 도시별 발생빈도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두 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 2396개 중 파리에서 812개(33.8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밀란 738개(30.80%), 뉴욕 445개(18.57%), 그리고 런던 401개(16.74%)로 나타났다. 그리고 2배색 코디네이션 발생빈도에 따른 도시별 유채색과 무채색 코디네이션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뉴욕은 141개(31.69%)로 나타나 상대적인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파리는 242개(29.34%), 런던이 107개(26.68%), 그리고 밀란은 187개(25.34%)의 빈도율로 나타나 컬렉션 도시별 두 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총 발생빈도와 두 배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과 유채색 코디네이션의 발생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컬렉션별 무채색의 유형별 발생율은 파리가 가장 높았고(35.75%) 그 다음은 밀란(27.62%), 뉴욕(20.83%) 그리고 런던(15.81%)의 순이었다. 무채색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도시에서 검정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흰색, 회색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도시별 무채색의 발생 유형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뉴욕과 파리는 검정색이 흰색보다 두 배가 넘는 정도로, 런던은 1.5배 정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 밀란은 두 색이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컬렉션별 유채색의 유형별 발생율은 런던을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서 갈색 계열이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컬렉션별로 다르게 나타나 무채색의 경우와 같이 유채색도 컬렉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4대 도시들 중 뉴욕과 파리는 2배색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율과 검정색의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채색, 특히 검정색과, 갈색, 청색, 초록색 계열의 유채색을 배합하면 세련되면서도 도시적인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음으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어떤 컬렉션보다 두드러진 도시인 뉴욕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파리 컬렉션은 선행연구 결과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으로⁶⁶⁾ 전통적인 스타일과 새로운 스타일들이 공존하는 파리 컬렉션은 비교적 색채 배합이 용이한 색채 코디네이션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과 밀란에서 두 배색 코디네이션에 따른 무채색과 유채색 배합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가 뉴욕과 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무채색과 유채색의 발생 양상도 뉴욕이나 파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런던의 특성상 유채색과 무채색 배합 등과 같은 무난한 색채 배합 방식보다는 보다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색채 배합을 통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컬렉션의 특성이 패션에서의 색채 코디네이션 사용 경향과 그리고 패션과 색채 유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패션에서의 이미지에 따른 효과적인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장보경(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2) 신상옥 외(2001). *현대 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p.135.
- 3) “김흥탁(2006), 사단 11월호 p.88” 자료검색일 2006.01. 10 자료출처 http://onphoto.biz/shop/bbs/photo_view.php?pno=12&db=myphoto
- 4) 유송옥(1997), *복식의장학*, 수학사, p.241.
- 5) 이경순 · 김희섭(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교문사, p.126.
- 6) 김흥탁(2006). Op.cit.
- 7) 전선정 외(2000), *토탈 코디네이션*, 청구 문화사, p.110.
- 8) 요하네스 이튼(1983),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지구문화사. p.25.
- 9) 장애란 · 안명숙 · 박우미(2000), *패션 코디네이션*, 예학사, p.51.
- 10) 전선정 외. op.cit, p.110.
- 11) 조필교 · 정혜민(1998), *패션 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p.108.
- 12) 김영신(2001).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형설출판사, p.20.
- 13) 이송림(1999),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송금옥(2000),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권혜숙 · 심은아(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 16) 장보경(1998), Op. cit., p5, 재인용, Grandis, Ligina De(1986), *Theory and Use of Colour*, NY: Harry N. Abrams, Inc., p35.
- 17) 신상옥 외(2001), *현대 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p.128.
- 18) 조기여 외(2000), *색채학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성화, p.19.
- 19) 이호정(1987), *복식디자인*, 교학연구사, p.77.
- 20) 다나 후이지(1991), *패션 코디네이트와 이미지 칼라전단*, 임경숙(역), (주)그래픽 사, p.9.

- 21) 우시우스옹(1999), *색채 디자인의 원리*. 유관호 (역), 도서출판 청우, p.49.
- 22) 조필교 · 정혜민, Op. cit., p.25.
- 23) 유송옥, Op. cit., p.214.
- 24) 조필교 · 정혜민, Op. cit., p.26.
- 25) 전선정 외, Op.cit., p.97.
- 26) 박필재 · 백숙자(2001), *컬러 코디네이트를 위한 색채학 입문*, 형설 출판사, p.39
- 27) 이은영, Op. cit., pp.170-171.
- 28) 정해정(2003). *컬러코디네이션*, 도서출판국제, p.33.
- 29) 이경손 · 김희섭, Op. cit., pp.117-119
- 30) 조필교 · 정혜민, Op. cit., p.118.
- 31) 전선정 외, Op. cit. p.113.
- 32) 박필재 · 백숙자, Op. cit., p.40
- 33) 전선정 외, Op. cit., p.113.
- 34) Ibid., p.121
- 35) 박필재 · 백숙자, Op. cit., p.91.
- 36) "효과적인 색채사용법에 대해", (2002.4.13), 이 안커뮤니케이션, 자료검색일 2008.6.30 자료출처 <http://www.iaancom.co.kr/faq/view.html?num=14&page=0>
- 37) "꾸러기와 만들기", 자료검색일 2006.10.30, 자료출처 <http://pmk3kr.com.ne.kr/m2-5.htm>.
- 38) 권혜숙 외(2004), 이미지 메이킹, 수학사, pp.83.
- 39) 오히선 · 박화순(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코디*. 경춘사, p.44.
- 40) "디자인의 세계-흰색과 검정의 기능",자료검색일 2006.10.30 자료출처 <http://2jong.daehane.com>
- 41) 권혜숙 외, Op.cit., pp.83-84.
- 42) "디자인의 세계- 흰색과 검정의 기능". Op.cit.
- 43) 권혜숙 외, Op.cit., p.84.
- 44) Collection, '02 S/S, I,II,III' 02/'03 A/W I,II,III., '03 S/S I,II,III., 03/04 A/W I,II,III. '04 S/S I,II,III., 04/05 A/W I,II,III. '05 S/S I,II,III., 05/06A/W I,II,III. '06 S/S I,II,III, 06/07 A/W I,II,III.
- 45) 권혜숙 · 심은아, Op. cit., p.148.
- 46) "센스있는 색상 코디법",(2007.10.24) 자료검색일 2007.10.30 자료출처 <http://pann.nate.com/b2032450>
- 47) Collection, 05/06 AW, III, Paris, p.34.
- 48) Collection, 05 SS, III, Paris, p.70.
- 49) Collection, 05/06 AW, I, N.Y , p.43.
- 50) Collection, 02/03 AW, III, Paris, p.80.
- 51) Collection, 06/07 AW, III, Paris, p.180.
- 52) Collection, 05/06 AW,III, Paris, p.103.
- 53) Collection, 06 SS , II, Milan, p. 167
- 54) Collection, 06 SS, III, Paris, p.70.
- 55) Collection, 06 SS, III, Paris, p.117.
- 56) Collection, 05/06 AW, I, N.Y, p.79.
- 57) Collection, 05 SS, III, Paris, p.37.
- 58) Collection, 05/06, AW, II, Milan, p.224.
- 59) Collection, 05 SS, III, Paris, p.211.
- 60) Collection, 05 SS, I, NY, p.410.
- 61) Collection, 05 SS, III, Paris, p.219.
- 62) 권혜숙 외, Op.cit., p.84.
- 63) 권혜숙(2005),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채 코디네이션 특성", *패션비즈니스*, 9(1), p.29.
- 64) 김수윤(2001),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 65) 김하니(2001), "1990년대 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2.
- 66) 권혜숙, Op.cit., p.29.

접수일(2008년 1월 21일)

수정일(1차 : 2008년 3월 11일, 2차 : 4월 30일)

게재확정일(2008년 5월 6일)



<사진1> Collection, 05/06 AW III Paris, P.34



<사진2>Collection, 05 SS III Paris, p.70



<사진3>Collection, 05/06 AW I N.Y. p.43



<사진4>Collection, 02/03 AW I N.Y. p.80



<사진5>Collection, 06/07 AW III Paris,p.180



<사진6>Collection, 05/06 AW III Paris,p.103



<사진7>Collection, 06 SS II Milan, p.167



<사진8>Collection, 05 SS III Paris, p.70



<사진9>Collection, 05 SS III Paris, p.117



<사진10>Collection, 05/06 AW I Milan, p.79



<사진11> Collection,05 SS III Paris, p.37



<사진12>Collection, 05/06 AW II Milan, p.224



<사진13> Collection,05 SS III Paris, p.211



<사진14>Collection, 05 SS I N.Y, p.410



<사진15>Collection, 05 SS III Paris, p.84